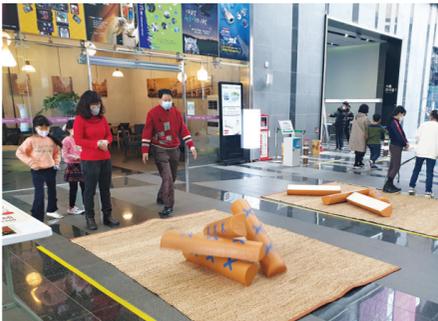


새해 덕담 나눴으면 공연·체험 나들이 나서볼까

박물관 민속놀이 체험 프로그램
 문예회관 국악상설공연·부대행사
 문화전당 오감 만끽 행사 한가득



국립광주과학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웃놀이를 하고 있다.



국립광주과학관을 찾은 관람객이 설맞이 행사 중 하나인 활쏘기 체험을 즐기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이 23일 선보이는 친환경 가족체험극 '우주로 간 토끼' 공연.



국립광주박물관 다문화체험에 참여한 관람객들이 전통놀이를 즐기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 다문화체험에 참여한 관람객들이 각국의 전통의상을 입어보고 있다.

최대명절 설이 찾아왔다. 각 기관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그동안 명절마다 진행해 온 각종 행사를 축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치렀다. 코로나19 방역 제한이 풀리면서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주요 박물관과 문화기관들은 중단됐거나 축소된 행사를 대면으로 확대하며 관람객 맞이에 나섰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새해 덕담을 나눴다면 인근 박물관과 공연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나들이를 떠나보자. 옛 선조들이 명절날 즐겼던 전통 놀이와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시간 만끽하지 못했던 '설'의 풍족함과 넉넉한 기운을 받을 기회다.

◇전통민속놀이 한판

국립광주박물관은 21일부터 24일까지 2023년 설맞이 우리 문화 한마당 '설날에도 박물관에 가볼까-충!'을 운영한다. 박물관은 설 연휴기간 중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 ▲세계놀이문화전문기관 전통놀이 다문화교육 연구소 '다늬'와 함께하는 다문화 체험 요(卯)두해(놀이·악기·의상체험) ▲기묘(卯)한 신년운세(웃짐) ▲박물관에서 토끼 찾았니? (스탬프미션) ▲도자기 문화재 무늬 짝꿍 뽑기(캡슐뽑기)를 상설로 운영한다.

'설날을 던져라' 이벤트도 마련했다. 전문 MC 진행에 따라 웃을 던져 '2023년 설맞이 우리 문화 한마당'이나 오면 '토끼·도자기 백설기'를 받을 수 있다.

국립나주박물관도 21~24일 박물관 앞마당에서 다양한 전통 민속놀이 체험 행사를 연다. 투호놀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굴렁쇠 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가족단위 참여객을 대상으로 한정 웃놀이 세트 1개를 나누는 이벤트도 준비했다. 행사는 선착순 100명에 한해 진행된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치러졌던 세시문화행사를 4년 만에 대면행사로 전환했다. 한복 입장객 100명에 한해 가오리엔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상설전시실에 숨은 검은토끼를 찾아 SNS에 인증사진을 올리면 토끼 저금통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복을 부르는 입춘죽 나눔 복주머니 만들기, 캘리그라피로 가훈 쓰기, 토끼모양 풍경 만들기 등 다채로운 민속놀이 체험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22일에는 JTBC 풍류대장에 출연한 임재현과 산귀남 프로젝트밴드의 퓨전 국악 공연, 백영경의 플루트 솔로무대가 펼쳐진다.

◇전통 공연 다채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설맞이 국악상설공연을 펼친다. 21일에는 창작국악단 도드리의 국악관현악 공연 '아리랑 광주', 22일에는 해금협주곡과 보령 승무로 꾸며진 공연단 예락의 '설날에 즐기는 우리음악'을 만나볼 수 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23일 극단 우주선의 친환경 가족체험극 '우주로 간 토끼' 공연을 선보인다. '우주로 간 토끼'는 고물상에 사는 토끼가 달나라에 있는 엄마를 만나기 위해 재활용품으로 우주선 만들기에 도전하는 이야기다.

국립남도국악원은 계묘년 새날, 설날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공연 '새해 새나라'를 22일 오후 3시 국악원 진악당에서 연다. 이번 공연은 '문굿', 정악 합주 '수제천', 무용 '태평무' 등 총 7개 작품으로 구성됐다.

농악의 한 절치인 문굿으로 신명 나게 문을 열며 '하늘 처럼 영원한 생명'이 깃들길 기원하는 수제천으로 함께 하는 분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한다. 이어 무용 태평무와 경기민요 '청춘가·태평가·경복궁타령', 전 세계 민요를 우리나라 유일한 화음악기인 생황으로 들어볼 수 있는 실내악 '생황과 함께하는 민요여행'이 펼쳐진다.

설날을 맞아 다양한 부대행사와 이벤트도 선보인다. 전통차와 직접 떡을 매쳐 만든 떡을 맛볼 수 있고 새해 소망을 전하는 연 만들기과 청사초롱 만들기도 준비했다. 진악당 야외마당에서는 웃놀이와 투호놀이 등 여러 민속놀이도 체험해 볼 수 있다. 특별 이벤트로 공연장에 한복을 입고 입장하는 관객과 토끼피인 관객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준다. 공연 시작 전후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진도 읍내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셔틀서비스가 운영된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설맞이 특별행사로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선보인다. 설 가족극장 애니메이션 영화상영(21~24일), 설맞이 인형극(21일), 전통탈춤 공연(23일), 가족 구연동화(24일)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가족과 친지, 연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행사를 마련했다. 어린이문화원 설 특별 프로그램 '다복다복(多福多福) 설날맞이' (사진 위)를 비롯해 어린이도서관에서는 그림책 속 꼬마 토끼의 성장 이야기를 나눴는 '온 가족 도란도란 그림책'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과학관 전역에서 전통 탈 만들기(21~23일), 전통 연 만들기(24일), 3D복주머니 만들기 등 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만들기 체험이 진행된다. 설 명절기간 동안 상설전시관이 무료로 운영되며, 온 가족 즉석사진 촬영과 특별전 관람후기 작성 시 떡국 밀키트도 받아볼 수 있다.

◇ACC 전통놀이·어린이공연·전시·행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비대면 공연 상영 프로그램 '설날은 ACC와 함께'를 운영한다. 지난해 호응을 받은 ACC 창·제작 공연 중 5편을 ACC 유튜브 채널과 문화포털로 선보인다. 아시아성과 동시대 가치를 담은 '수박등 아이들'을 비롯해 아시아 원천 스토리 발굴 공모 당선작을 극화한 '마디와 매듭', 제2회 국제공통 창·제작 공연사업으로 제작한 무용 '공허와 만남', 연극 '뉴 일루전'과 '남편 없는 부두' 등이다.

'수박등 아이들'은 월산동 수박등 야산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소년들의 모험기다. 아이들의 천진한 이야기 속 은폐됐던 시대의 비극과 상처를 마주하며 기쁨과 슬픔, 인류애를 확인할 수 있다. 평범한 사람의 서사는 자연의 시간을 살아내는 여인들의 이야기인 '마디와 매듭'으로 이어진다. 여인의 삶을 동지부터 하지까지 춤과 노래로 엮었다. '공허와 만남'은 비탄의 감정을 다양한 문화와 전통의례 양식을 기반으로 풀어가는 실험무용이다. 연극 '뉴 일루전'은 연출가 토시키 오키다와 이남치밴드 리더 장영규가 제안한 새로운 형태의 '영상연극'이다.

어린이문화원과 아시아문화광장 일대에서 아시아 전통 놀이와 체험, 공연, 전시로 구성된 설 특별 프로그램 '다복다복(多福多福) 설날맞이'를 진행한다. 새해 소망을 담은 전통놀이 도구를 만들어 보는 창작 활동을 어린이체험관에서 할 수 있다. 야외 광장에 마련한 '아시아 전통놀이 마당'에선 라리까유(나무판에 발걸음을 만들어 정해진 코너를 달리는 인도네시아의 놀이), 던가라(코코넛 열매로 만든 신발을 신고 경주하는 태국 전통놀이), 웃놀이 등 아시아의 다양한 전통놀이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다.

어린이문화원 로비에선 21~22일 설맞이 어린이 공연

이 가족단위 관객을 기다린다. 어린이문화원 도서관센터와 다목적홀에선 어린이 블록아트체험 특별전 '용왕을 만나는 길' 연계 프로그램인 '신나는 블록 놀이'가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검은 토끼' 해의 특별한 의미를 담은 다양한 설맞이 프로그램들도 준비했다. 어린이도서관에서는 그림책 속 꼬마 토끼의 성장 이야기를 나눴고 가족의 특별한 장점을 표현하며 책을 만들어보는 '온 가족 도란도란 그림책'을 운영한다.

어린이문화원 로비에서는 복주머니 카드에 내가 받고 싶은 복(福)을 담아 소원나무에 걸어보는 '복주머니 소원 나무'와 귀여운 검은 토끼를 1분 마법 문신을 새겨보는 '검은 토끼 행운 타투'를 진행한다. 설맞이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진무대'에선 새해 소망을 기원하며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시도 만날 수 있다. 문화창조원 복합전시 1관에선 인간과 비인간, 존재 사이의 조화로운 공생을 모색하는 '지구 생존 가이드: 포스트 휴먼 2022'를 감상할 수 있다. 복합전시 2관에선 아시아 고유의 사상과 공간을 융·복합 작품으로 재해석한 '사유정원, 상상 너머를 가늠다'를 즐길 수 있다.

복합전시 3·4관에선 좀비를 동시대의 상징으로 재해석한 전시 '좀비 주의', 복합전시 5관에선 비디오 대역접에서 보고 싶은 영화 테이프를 빌려 친구들과 함께 감상했던 향수를 자극하는 전시 '원초적 비디오 본색'이 각각 열리고 있다.

문화정보원에서는 자연과 인간을 하나의 유기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생태의식을 제시하고 공유하는 전시 '녹색 신화', '아시아의 도시 문화' 도서를 한 자리에서 훑어보는 ACC 도서관 도서추천서비스(북큐레이션), 중앙아시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한 기획전시 '중앙아시아의 펠트'가 설 연휴의 즐거움을 더한다.

ACC는 설 연휴기간 정상 개관한다. 25일은 대체 휴관일이다. 설 연휴기간 콘텐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화·이나라 기자